효과적인 표준 발음 교육

이동석(고려대)

<차 례>

1. 서 론
2. 표준 발음 구사를 방해하는 요인들
   2.1. 교육과정
   2.2. 교육자의 자질
   2.3. 대중 매체
3. 효과적인 발음 교육법
   3.1. 발음 오류 중심의 접근
   3.2. 시청각 자료 사용
   3.3. 원리 중심의 접근
   3.4. 국어사전 활용
4. 결 론

<Abstract>

The Effective Education of the Standard Pronunciations

Dong-Seok Le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make the general korean speakers to learn the standard pronunciations. But it is in existence that the obstructions of the command of the standard pronunciations. They are the mistake in the education course on the korean pronunciations, the teacher's capability and the mass communications's duplicity. To overcome this obstructions, we must concentrate our efforts on the propagation of the standard pronunciations. To propagate of the standard pronunciations we can take a several method. These are the presentation of the pronunciation mistakes, audio-visual teaching, the presentation of the pronunciation principles and the use of the korean dictionary. The standard pronunciations are different from the pronunciations of the general korean speakers in many respects. So we can't make an accurate estimate of the pronunciation's changes. No one knows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about the korean pronunciations. But we must teach the standard pronunciations to the general korean speakers. The standard pronunciations are offically valid in the present time.

* Keywords : Standard Pronunciations, Korean dictionary, audio-visual teaching

1. 서 론

언어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구별해 주는 척도 중의 하나다. 이 언어를 크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눌 때,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특성은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다양한 인간 사회에서 문자 언어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많이 발견되어도, 음성 언어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문자 언어보다 음성 언어에 더 친밀감을 느끼며, 스스로도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언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 화자들의 발음은 그리 완벽한 편이 아니다. '표준 발음법'은 물론 개별적인 어휘의 발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화자들이 올바른 발음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올바른 발음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체로 국어 화자들의 올바른 발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국어 화자들의 올바른 발음 구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진단하고, 아울러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발음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표준 발음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데 당장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겠지만,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여,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표준 발음 구사를 방해하는 요인들

대부분의 국어 화자들이 정확한 표준 발음 구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표준 발음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에 덧붙여 교육의 영역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텐데, 본 장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다.

2.1. 교육과정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지식 영역'과 '국어 생활'에서 표준 발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표준 발음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7차 교육과정의 발음 교육 내용
1학년 : 한글 낱글자의 음가 습득
2학년 : 자음과 모음 구별
6학년 : 표준 발음 사용
8학년 :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
9학년 :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
11학년 :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

위의 정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발음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6학년이 될 때까지 발음 교육을 다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2, 3학년에 해당하는 8학년과 9학년에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에 대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2학년 때인 11학년에 국어 규범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1].

이처럼 발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표준 발음을 올바르게 구사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문자 언어와는 달리 음성 언어가 매우 이른 시기에 말을 배우는 시점부터 습득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이미 웬만한 발음은 거의 습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겨우 1, 2학년 동안에 낱글자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만 발음 교육을 하고 그 이후로는 6학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사교육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글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무시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표기를 익힘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발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기와 발음을 구분하여 교육하기보다는 이 둘을 잘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단어의 발음을 먼저 배운 후 표기를 나중에 배우지만, 한글을 배운 후에는 표기를 먼저 접한 후 곧이어 발음을 배우는 경우가

1) 발음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은 최병림[3]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져 있다.

발생하게 된다.

표기가 항상 발음과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표기와 함께 발음을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김밥[김밥] 등과 같은 개별 어휘의 발음은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교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틀리기 쉬운 발음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연령별로 발음 실태를 조사하는 체계적인 작업이 요구되는데, 강성원[1], 성낙수[2] 등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표준 발음과 어긋나는 발음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학년별 발음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지금과 같은 심한 괴리 현상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발음 교육은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한다.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국어 화자들이 오류를 보이는 맞춤법 가운데 많은 부분은 잘못된 발음 정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너 어릴 적 사진 보니 귀엽지만 지금의 모습과 달르다.
만난 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성룡이가 게임을 다운시킬라고 인터넷에 들어갔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던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위의 예들은 실제로 국어 화자들이 사용한 문장을 수집한 것인데, '달르다, 별루, 다운시킬라고, 식으로던지'에서 맞춤법 오류를 보이고 있다. 대개는 이런 오류를 맞춤법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음 교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올바른 발음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위와 같은 잘못된 표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발음 교육을 등한시하고 발음과 표기 교육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오류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표기법 차원으로만 교육받은 정보들은 화자의 입장에서도 발음 정보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표기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발음의 영향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표기를 반복하여 사용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발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한편, 발음 교육이 표기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2) 본고에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보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설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큰

2.2. 교육자의 자질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자의 자질은 교육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발음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현재의 상황은 교육자를 포함하여 국어 화자 중에서 발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이다(이묘복[4]).

이러한 지적은 교육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교육자라 해도 교육의 주체이기 전에 교육의 객체였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 이 시기에 제대로 된 발음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교육자는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지만, 문제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이나 교육자가 참고할 만한 발음 관련 정보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표준 발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표준 발음법은 매우 간략하여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발음을 다 취급하지 못한다. 게다가 교육적인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 표준 발음과 화자들의 실제 발음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당수의 구체적인 발음 정보에 대해서 교육자가 자체적으로 실제 경험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지도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다르다'를 대다수 화자들은 [다르다]가 아닌 [달르다]로 잘못 발음하고 있지만, '표준 발음법'을 통해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발음 교육은 이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교육자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지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발음 교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발음 교육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자들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이 보다 내실화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자들 간의 정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만 잘 만들어진다면 정보 공유와 교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교육 현장과 교육 정책 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발음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한 연구들에서도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접합시키는 연구의 진행이 아직도 미진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립을 연결하는 고리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교육자와 관련된 문제 중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자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발음이 올바르게 구사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발음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현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지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올바른 발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육자가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발음을 구사하도록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잘못된 발음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자가 심하게 지역 방언을 구사하는 경우이다. 일부 경상 방언에서는 [ㅡ]와 [ㅓ]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고, 일부 전라 방언에서는 이중모음을 제 음가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교육자가 이러한 발음상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면, 발음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그 자격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교육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역 방언의 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표준어를 잘 구사하는 화자라 하더라도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장단을 구별하거나 모음 [ㅖ], [ㅐ]를 구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별적인 직관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을 하는 데 애를 먹게 된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장단과 모음 [ㅖ], [ㅐ]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교육자의 자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장단을 가지고 있는 일부 방언권 화자를 제외한 모든 젊은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표준 발음법과의 괴리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완전히 세대교체가 일어난 후에는 장단과 [ㅖ], [ㅐ]을 구별하는 문제가 아예 규정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변별성을 가진 세대와 변별성을 가지지 못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수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교육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각 상황에 맞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교육자의 자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발음 교육 담당자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교육자 스스로가 연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간다면 발음 교육과 관련하여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 예상된다[3].

3)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본고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역시 이 문제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세부적으로 전개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없는 듯하다.

2.3. 대중 매체

대중 매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국어 화자들에게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텔레비전인데, 발음과 관련하여 텔레비전이 미치는 영향은 특히 20대 이전의 학생들에게 매우 크게 작용한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올바른 발음 습득이라는 면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한 도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해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발음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의 유용한 측면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뉴스'를 들 수 있다. 뉴스 진행자들이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뉴스 진행자들의 발음을 신뢰하고 그들의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재미와 폭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듣기에도 민망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괴상한 표현들을 남발한다. 이 와중에 잘못된 발음이 속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방송 중에 반말을 사용하면서 '너'를 [니]라고 발음하거나 과도하게 경음을 사용하는 경우, 앞서 지적한 대로 '다르다'를 [달르다]라고 발음하는 경우 등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빈번한 발음 오류가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렇게 잘못된 방송 출연자들의 발음은 시청자들의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정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고착화된다. 특히 학교에서 지속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발음 학습은 주위 사람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방송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출연자들에게 권고문을 보낸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규제나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 일반인들의 출연이 잦은 점도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인들의 짤막한 인터뷰를 내보내거나 생방송 발언을 내보낼 때, 또 일반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한 시간 내외의 다큐멘터리를 내보낼 때, 일반인들의 발음을 일일이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송 여건상 그러한 인력이나 능력, 여유가 없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전반

적으로 방송에서 올바른 발음을 사용하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반 화자들의 발음도 그에 따라 차츰 향상되어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들의 발음에서도 오류 발견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발음의 문제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판단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발견된다. 오히려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정확한 발음이 구사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많은 기자들과 뉴스 진행자들이 올바른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발음상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잘못 발음된 것을 시청자들이 올바른 발음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올바른 발음을 보급하고자 노력하여 지금까지 쌓아 왔던 성과들이 상당 부분 무너져 내리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발음이 잘못 사용된 실례를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뉴스' 프로그램 발음 오류 사례

【사례1】 방울토마토 관련 보도

뉴스 진행자 : [토마토]로 발음.

충청권 기자 : [토마도]로 발음.

인터뷰 참여자 : [도마도]로 발음.

【사례2】 닭 관련 보도

뉴스 진행자 : '닭을'을 [달글]로 발음.

기자 : '닭을'을 [다글]로 발음. '닭이'를 [다기]로 발음.

【사례3】 사기극 관련 보도

기자 : '간단히'를 [간딴히]로 발음.

【사례4】 눈 관련 보도

뉴스 진행자 : 'cm'을 [센티미터]로 발음.

기자 : 'cm'을 [센티미터]와 [센치미터]로 섞어 발음.

위의 예에서 보듯이 방송실에 있는 뉴스 진행자의 경우에는 발음에 대한 오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기자의 경우에는 발음 오류가 매우 빈번하게 발견된다. 뉴스 진행자에 비해 기자들의 발음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겠지만,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뉴스 진행자이든 기자이든 그들의 발음을 전범으로 삼고자 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장면', '효과', '장맛비' 등의 발음은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자장면], [효과], [장맏삐/장마삐]라는 발음을 낯설어하며 심지어는 심한 거부감까지 느낀다는 점이다. 이들 어

휘는 뉴스 진행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올바른 발음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자들은 이들 어휘의 올바른 발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상생활에 반영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다.

방송에서 끊임없이 개별 어휘들의 올바른 발음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개별 어휘의 발음이 형평성 없이 단발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자장면'과 '짬뽕'은 대표적인 중화요리인데, 기존에 '짜장면'이라고 쓰고 발음하던 것을 '자장면'으로 쓰고 발음하도록 고치면서 대부분의 화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짬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유래한 'zhajiangmian'을 '자장면'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원칙에 따라 일본어에서 유래한 'champon'은 '잠퐁'이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발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왜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라고 쓰고 발음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짬뽕'에 대한 질문이 나올까 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champon'을 '초마면'으로 순화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방송에서는 여전히 '짬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언중들이 수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발음의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발음 교정 노력이 특정 어휘에만 국한되어 균형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4].

이 밖에 지역 방언의 영향, 부모의 표준 발음 구사 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본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과정, 교육자, 대중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 효과적인 발음 교육법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발음 교육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장에서 표준 발음 구사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구조적인 문제들이어서 본고에서 이들을 해결할 만한 새로운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규모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항별로 별도의

4) 대중 매체의 문제도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방송국 자체 내의 끊임없는 노력과 방송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독립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앞장에서 제시한 간략한 대안으로 만족하도록 하겠다.

대신 본 장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동기 부여, 기초 학습, 심층 학습, 개별 학습의 단계로 제시될 것이다.

3.1. 발음 오류 중심의 접근

발음 오류 중심의 접근 방법은 동기 부여에 속한다. 교육을 할 때 치밀하게 고려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동기 부여다. 모든 학습자는 교육 내용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발음 교육을 포함한 문법 교육의 경우에는 웬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 내기가 어렵다. 문법은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이 많은 화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러한 선입관을 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 학습자가 발음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발음 교육을 위한 동기 부여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지적해 주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국어 화자들은 자신들의 발음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음 오류를 지적해 주어도 그것을 잘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자의 세밀한 지적이 뒤따르면 이전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발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사실 발음 오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대개는 학습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작업 정도로 최급되었다. 그러다가 최병림[3], 이묘복[4] 등에서 탐구 학습의 일부로서 발음 오류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본고의 주장은 이 두 경향 사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

탐구 학습은 궁극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그 내용을 습득·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발음의 특성상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매우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발음만이 도출될 뿐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발음 교육 상황과 환경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 자체가 학습자에게 매우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발음 오류 중심의 접근 방법은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

키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표준 발음법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국어 화자들이 오류를 보이는 발음에 대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제4항과 관련하여 'ㅐ'와 'ㅔ'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보다 확대시키면 다음과 같은 네 단어의 발음이 동일하게 실현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4) 개, 게, 개, 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 자신은 이 발음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습자가 한둘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게 떼같이 덤벼들다'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제시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부분 이를 '개떼같이 덤벼들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개떼'를 표제어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예문에서 '개떼같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게 떼같이'가 원래의 표현이다. 사전에서도 혼란을 보일 정도로 'ㅐ'와 '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는 '게거품'을 '개거품'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습자도 있을 정도다[5].

둘째, 제3장 전체에 해당하는 장단의 구별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 이 부분은 연령이 높지 않는 한 웬만한 교육자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다수 화자들의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의 괴리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제13항과 제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받침의 발음을 지적할 수 있다.

(5)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써]
낮이[나지] 꽃아[꼬자] 꽃을[꼬츨]
쫓아[쪼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덮이다[더피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

5) 학습 방법을 제시한 많은 연구들에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드백(feedback)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본고는 그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feedback) 요령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로 발음함.).

넋이[넉씨]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곬이[골씨]	핥아[할타]
읊어[을퍼]	값을[갑쓸]	없어[업:써]

제13항의 규정과는 달리 많은 국어 화자들은 'ㅈ, ㅊ, ㅌ'이 후행하는 모음과 결합할 때 이를 [ㅅ]로 발음하고, 받침 'ㅋ'과 'ㅍ'이 후행하는 모음과 결합할 때 이를 각각 [ㄱ]와 [ㅂ]로 발음한다. '젖을, 꽃을, 팥을, 부엌을, 무릎을' 등을 각각 [저슬], [꼬슬], [파슬], [부어글], [무르블]로 발음하는 경향을 통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은 올바른 발음을 구사한다고 주장하는 학습자가 더러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자신의 발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상적인 발음의 간섭 때문에 생기는 착각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며 표준 발음과 대다수 국어 화자들의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14항과 관련해서는 겹받침 다음에 모음이 연결될 때 종성에 있는 두 자음의 음가가 모두 살아나지 않고 자음 하나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닭이, 흙이'를 [다기], [흐기]로 발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발음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학습자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에 '통닭이, 통닭을'을 발음해 보라고 하면 대개 [통다기], [통다글]로 발음한다. 이론적으로는 '통닭이, 통닭을'을 [통달기], [통달글]로 발음해야 하지만, 이런 발음을 구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제13항과 제14항과 관련된 오류들은 체언에 한정되어 발생한다. 용언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자들이 표준 발음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체언이 자립적인 데 비해 용언 어간은 비자립적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제20항 유음화 현상과 관련된 발음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제20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괄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ㄶ', 'ㄵ'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닳는[달른] 뚫는[뚤른] 핥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딴녁]	공권력[공꿘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녜]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붠뇨]	구근류[구근뉴]	

대부분의 화자들은 유음화 현상을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선릉, 광한루, 음운론' 등에서 발음을 혼란스럽게 실현시키고 있다. 이들의 발음은 [설릉], [광할루], [음운논]이 옳지만, 잘못된 발음인 [선능], [광한누], [으물론]을 어렵지 않게 들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원룸, 인라인' 등의 발음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는지 질문하여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들은 외래어라 형태소 경계가 삽입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올바른 발음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6]. 이 발음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고 올바른 발음에 대해 토론한다면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제21항과 관련하여 순음화 현상과 연구개음화 현상이 실현된 발음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제2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7) 제21항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기](×[강:기])	옷감[옫깜](×[옥깜])
있고[읻꼬](×[익꼬])	꽃길[꼳낄](×[꼭낄])
젖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뻡](×[뭄뻡])

[강기], [옥깜], [익꼬], [꼭낄]은 연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된 발음이고, [점머기], [뭄뻡]은 순음화 현상이 반영된 발음이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 두 음운 현상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어 화자들은 이 현상을 자연스럽게 적용시키고 있다. 워낙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데다가 수의적인 현상이다 보니 철자에만 이끌려 자신의 발음이 두 현상의 적용을 받은 상태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전

6) 이에 대해서는 올바른 발음을 참고할 만한 아무런 정보도 없다. 국어사전에서조차도 외래어에 대해서는 발음 정보를 수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인라인'에 대해서 형태소 경계 인식 여부에 따라 유음화된 발음과 비음화된 발음이 둘 다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발음의 선호 경향을 보았을 때 [올라인], [일라인]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올라인], [일라인]으로 발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 진행자들은 대체로 영어 발음에 가깝게 [온라인], [인라인]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경우 발음이 좀더 딱딱해지면 [온나인], [인나인]으로 들린다.

혀 인식하지 못하는 화자들도 많다.

여섯째, 제6장 '된소리되기 현상'과 관련된 발음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보편화된 발음 [짜장면]과 [효꽈]를 왜 [자장면]과 [효과]로 고치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는 화자들이 많다. 이들 발음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시해 주면 많은 학습자들이 발음의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잘못된 어두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자르다, 볶다, 닦다' 등을 [짜르다], [뽁따], [딱따]로 경음화시키는 현상이 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좀더 난이도를 높이면, '물고기'는 [물꼬기]로 경음화되는데 '불고기'는 왜 경음화되지 않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볼 수도 있다. 이는 형태·의미론적인 문제인 데다가 해석상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수준 높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복수 발음에 대한 질문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복수 발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ㅚ, ㅟ'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점, 'ㅢ'를 [ㅣ]로 발음하거나 [ㅔ]로 발음하는 경우가 구별되어 있다는 점, '맛있다, 멋있다'의 발음으로 [마딛따], [머딛따]와 [마싣따], [머싣따]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선행 질문을 통해 흥미롭게 다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이긴 하지만, 흔히 틀리기 쉬운 몇 가지 발음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밟고'는 [밥:꼬]가 올바른 발음이지만, 김소월 시인의 시 '진달래꽃'의 영향인지 대부분의 화자들이 [발꼬]로 실현시키고 있다[7]. '옳-'과 '-네'의 결합을 [올레]로 발음하지 않고 중간에 '으'를 집어넣어 [오르네]로 발음하는 것도 평소에 틀리기 쉬운 발음 중의 하나이다.

3.2. 시청각 자료 사용

시청각 자료 사용은 기초 학습 단계에서의 학습 도구에 해당한다. 문법 교육은 이론적 바탕 위에서 진행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많은 학습자들이 문법은 재미없고 어렵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음 교육은 여러 문법 교육 분야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실례를 바탕으로 전개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발음에 대한 기초 학습 단계에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장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본고에서는 주로 시청각 자료의 준비

7) '사뿐히 즈려 밟고'를 낭독할 때 일반적으로 [발꼬]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한데, 김선철[5]에 따르면 시어가 아닌 경우에도 '밟고'를 [발꼬]로 잘못 발음하는 비율이 90%에 이른다고 한다.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시청각 자료의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각 단계의 학교마다 시청각 관련 기자재를 잘 구비해 놓고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 스크린, 앰프 정도만 갖추어져 있으면 동영상을 감상하기에 불편이 없다.

동영상은 주로 tv 방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용 동영상 파일을 사용하는 게 좋다. 컴퓨터용 동영상 파일은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동영상 파일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ASFRecorder, Hi-Net Recorder, Net Transport 등의 다양한 동영상 저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tv 방송 프로그램의 url을 알고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tv 방송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컴퓨터에 장착하여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tv 수신 카드를 이용하여도 실시간 tv 방송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tv 방송 프로그램 중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경험적으로 볼 때 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출연자들의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예능 프로그램은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자료가 되지만, 진행이 빠른 데다가 학습자가 발음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에만 몰두할 위험이 있어 피하는 게 좋다.

반면 뉴스 프로그램은 정확한 표준 발음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므로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된다. 다만, 발음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부분부분 잘못된 발음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아무리 발음을 철저하게 익혀도 잘못된 발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다.

뉴스 프로그램은 방송 url을 통해 동영상 저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도 있고, tv 수신 카드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저장한 시간만큼 파일 재생 시간이 길게 설정되기 때문에 특정한 발음을 부각시켜 보여 주고 싶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분할하여 필요한 부분만 따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일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은 각 포탈 사이트의 뉴스 동영상을 다운받는 것이다.

국내의 웬만한 포탈 사이트들은 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대개 기사별로 끊어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파일의 재생 시간이 2분 내

외로 발음 지도를 하기에 매우 적당하다. 최근에는 웹상에서 url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취하여 동영상의 url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편이지만, 웹사이트에 따라서 url 수집이 용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본고는 앞서 대중 매체가 표준 발음 구사를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뉴스 프로그램은 비교적 모범적인 발음을 실현시키므로 발음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설령 뉴스 프로그램에서 발음 오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발음 오류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아무리 해로운 것도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보약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3.3. 원리 중심의 접근

원리 중심의 접근은 심층 학습 단계에 속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리를 접근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 발음법'은 이러한 점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특정한 수준에 있는 대상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원리를 풀어 설명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리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기술에 그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이 때문에 내용이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더 원리적인 면을 기술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고는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가정 하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해 볼 만한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구개음의 충돌에 의한 원리를 제시해 볼 수 있다.

(8)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 → 가져[가저] 찌어 → 쪄[쩌]
다치어 → 다쳐[다처]

구개음화 현상은 10대 정도의 국어 화자라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위의 규정은 구개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ㅈ, ㅉ, ㅊ/가 역시 구개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활음 /j/를 만날 때 활음을 탈락시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원리적인 면에서 구개성 자질의 충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구개음화 현상이 동화 현상이라는 점만 알고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9) 제3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3.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ㅈ'으로 적는다.
mirage[mirɑ:ʒ] 미라지 vision[viʒən] 비전
제4항 파찰음([ts], [dz], [tʃ], [dʒ])
2. 모음 앞의 [tʃ], [dʒ]는 'ㅊ', 'ㅈ'으로 적는다.
chart[tʃɑ:t] 차트 virgin[və:dʒin] 버진

위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면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자, 저, 주, 조, 차, 처, 추, 초'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쟈, 져, 죠, 쥬, 챠, 쳐, 쵸, 츄'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추출된다. 영어에서 /ʒ, tʃ/와 /j/가 연쇄를 보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쥬스, 쵸콜릿, 퓨젼, 피카츄, 죠스, 쥬라기' 등은 '주스, 초콜릿, 퓨전, 피카추, 조스, 주라기'로 표기하는 게 옳다. 이러한 식으로 '표준 발음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관련시켜 설명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자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둘째, 유음화 현상과 비음화 현상의 경쟁 관계와 원리를 제시해 볼 수 있다.

(10)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괄령]
(2)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ㄶ', 'ㄾ'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닳는[달른] 뚫는[뚤른] 핥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딴녁] 공권력[공꿘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녜]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붠뇨] 구근류[구근뉴]

설명의 실마리는 음운 현상의 환경인 'ㄴㄹ' 연쇄에서부터 시작한다. '신라'와 '신라면'은 동일한 'ㄴㄹ' 연쇄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에서는 [ㄹㄹ]로, 후자에서는 [ㄴㄴ]으로 발음된다. 이 차이의 비밀은 'ㄴㄹ' 연쇄 사이에 개입된 형태소 경계의

유무이다. 'ㄴ'과 'ㄹ' 사이에 형태소 경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와 같이 유음화 현상이 적용된 [ㄹㄹ]이 도출되지만, 형태소 경계가 개입되어 있으면 후자와 같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ㄴㄴ]이 도출된다. 제20항의 '다만' 규정에서 예외처럼 인정한 [ㄴㄴ] 발음들은 모두 형태소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이처럼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0항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널리 응용하기가 어렵다. 형태소 경계 유무가 기준이라는 점만 알고 있어도 '선릉'의 발음을 왜 [선능]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지, '분루'(憤淚)라는 다소 생소한 일본 외래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언어학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편이라면, 유음화 현상과 비음화 현상의 근본적인 (경쟁) 원인에 대해서 좀더 원론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유음화 현상과 비음화 현상의 발생 원인은 공명도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11) C_1C_2가 연쇄될 때 C_1의 공명도가 C_2의 공명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국어에서 자음이 연쇄될 때에는 위와 같이 공명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에는 자음의 공명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모음을 집어 넣어 결국에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성형을 도출하게 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으'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의 공명도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정을 거친 결과이다. 그런데 체언과 체언이 결합할 때에는 모음 '으'를 삽입하지 않고 자음의 공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ㄴㄹ' 연쇄는 'ㄴ'의 공명도가 'ㄹ'의 공명도보다 커 위의 조건을 어기게 되는데, 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ㄴ'의 공명도를 올려 'ㄹㄹ'을 만드는 방법과 'ㄹ'의 공명도를 내려 'ㄴㄴ'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는 유음화 현상을 적용하고, 형태소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비음화 현상을 적용하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비음화 현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선능], [광한누]와 같이 전통적인 발음에 어긋나는 새로운 발음이 생성된 것이다.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면 이러한 원리 설명을 통해 발음과 관련된 학습자의 실력을 한 차원 더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인라인, 원룸'과 같은 외래어의 경우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원리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토론도 가능할 것이다.

이 밖에 지엽적이긴 하나 '맛있다, 멋있다'의 발음으로 [마딛따], [머딛따]와 [마싣따], [머싣따]를 모두 인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8].

3.4. 국어사전 활용

국어사전 활용은 개별 학습 단계에 속한다. 공식적인 발음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발음과 관련된 수많은 의문들을 일일이 교육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개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바로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 게시판을 비롯하여 우리말과 관련된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질문의 90% 이상이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올바른 국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가장 든든한 도구인 국어사전이 일반 화자들 사이에서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띄어쓰기를 비롯한 웬만한 표기법과 발음은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발음의 경우 단어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사전의 표제어가 단어 차원에서 등재되므로 거의 대부분의 발음 문제는 국어사전을 참고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화자들은 국어사전을 거의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어사전을 참고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화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국어사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제어 수가 매우 적은 소사전인 경우에는 수록 어휘의 수도 적고 정보도 부정확한 경우가 있어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금성판 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과 같은 대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중 국어어문규정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이다. 각 사전마다 장단점과 특징이 있지만 어문규정에 대한 안내서로 사전을 원하는 것이라면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사전들은 가격이 비싸 구입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 물론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화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문규정을 참고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거금을 들여가며 사전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8) [마딛따], [머딛따]는 '맛 있다', '멋 있다' 구성의 자연스러운 발음이고, [마싣따], [머싣따]는 '맛이 있다', '멋이 있다'에서 중복되는 '이'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진 발음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보다 저렴하게 사전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종이 사전 대신 사전 CD-ROM을 구입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훈글 2002'에는 '한컴 사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한컴 사전'에 「표준국어대사전」이 포함되어 있어 역시 편리하게 표제어를 검색해 볼 수 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표준국어대사전 웹 서비스' (http://www.korean.go.kr/dictionary/kd01.htm)를 이용하면 무료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누구든지 손쉽게 국어사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국어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육자의 몫이다. 학습자들이 발음을 비롯한 어문규정에 대해 질문을 하려 할 때, 질문하기에 앞서 국어사전을 먼저 찾아보도록 유도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래어의 경우에는 국어사전에 발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많은데, 다소 무책임한 면이 엿보인다. 일반인들이 외래어의 경우에도 발음을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편집을 할 때 외래어 표제어에 대해서 발음을 명시해 주는 게 좋을 듯하다.

4. 결 론

지금까지 표준 발음과 관련하여, 표준 발음 구사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발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준 발음 구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교육과정의 문제점, 교육자의 자질, 대중 매체 등을 꼽았다. 교육과정은 발음 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자의 자질로는 현재의 교육자들이 발음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대중 매체와 관련해서는 방송 출연자들의 잘못된 발음의 영향력 등을 지적하였다.

효과적인 발음 교육법으로는 발음 오류 중심의 접근, 시청각 자료 사용, 원리 중심 접근, 국어사전 활용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필자가 실제 강의를 통하여 효과를 보았던 방법들이다.

본고는 '표준 발음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는데, '표준 발음법'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표준 발음법'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준

발음법' 자체에도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미 공식적으로 고시가 된 이상 발음 교육이 '표준 발음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표준 발음이 현실 발음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일치시켜 나가는가 하는 점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육의 차원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므로 본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인 측면과 현장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표준 발음 구사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1] 강성원, "標準發音과 高校生의 現實發音에 對한 比較 硏究",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성낙수, "초등학생들의 표준 발음 실태 및 지도 방안", *한국어문교육* 13, 2004.
[3] 최병림, "*탐구 학습을 통한 국어 발음 지도 방안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 이묘복, "발음 지도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 김선철, 표준 발음 실태 조사Ⅱ, *국립국어연구원*, 2003.

접수일자 : 8월 20일
게재결정 : 9월 13일

▶ 이동석(Dong-Seok Lee)
주소: 138-829 서울 송파구 방이2동 98-11 홍익주택 401호
소속: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화: 02) 414-7311
E-mail: L7311@chol.com